

세계정당인들과 함께한 임핑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드 관동 (명동출발점)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월드컵을 향하여! ... 지구촌 '축구 전쟁'

대륙별 최종예선 시작 ... 오늘 북-UAE 격돌

태극전사 10일 밤 상하이서 북한과 첫 경기

월드컵 본선을 향한 지구촌의 축구 전쟁이 시작됐다.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정한 'A매치 주간'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대륙별 최종 예선 104경기가 치러진다.

아시아 국가들은 6일 바레인-일본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본선 티켓 4.5장을 향한 대장정에 들어간다.

3차 예선을 통과한 10개팀이 맞붙는 최종예선은 5개팀씩 풀리그 방식으로 승부를 가려 각 조 상위 1.2위팀이 본선 자동 진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각 조 3위팀의 승자는 본선 무대를 밟기 위해 오세아니아 1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이란·사우디·UAE·북한과 B조에 속한

한국은 10일 밤 9시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과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을 치른다. 한국과 북한은 올헤에만 모두 세 차례 맞대결을 펼쳤으나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은 상대전적에서 3승6무5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사우디와 북병 이란과 한 조에서 격돌하게 된 만큼 '중동의 모택 바랍'을 뚫기 위해 반드시 북한전에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중동의 라이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6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갖고, 호주·바레인·우즈베키스탄·카타르 등 상대적으로 수월한 팀과 A조에 편성된 일본도 6일 바레인을 상대로 최종예선 일정을 시작한다.

림 베어백 전(前)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아시아 최종 예선 9월 일정

날짜	조	경기(앞팀이 홈팀)
6일	A조	바레인 - 일본
	B조	카타르 - 우즈베키스탄
10일	A조	UAE - 북한
	B조	사우디 - 이란

* A조 : 호주·일본·바레인·우즈베키스탄·카타르
B조 : 한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북한·UAE

이 지휘봉을 잡은 호주는 10일 우스베키스탄과 격돌하게 된다.

세계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유럽의 대결은 53개팀이 9개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13장의 티켓이 배정된 유럽의 경우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조 2위팀 중 상위

8개팀이 플레이오프로 나머지 4장의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된다.

유로 2008 챔피언 스페인과 6일 보스니아-헤라고체고비나의 맞대결로 각오프하는 유럽 최종예선은 'A매치 주간'동안 총 49경기의 숨막힌 대결을 펼치게 된다.

2006 독일월드컵 챔피언 이탈리아는 '우승 청부사'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다시 불러들여 키르코스와 첫대결을 펼치게 된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는 10일 웨일스와 4조 첫경기를 치르게 된다.

2008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메시와 리켈메가 포진한 아르헨티나는 6일 파라과이에 이어 10일 페루와 잇달아 경기를 갖는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 획득에 그친 브라질은 호나우지뉴와 카카, 아드리아누 등을 앞세워 7일 칠레와의 원정 경기를 갖고 명예회복에 나선다.

2010년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예선전을 겸한 아프리카 예선은 6일 월드컵 개최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공고 축구부 창단

감독 김찬중·선수 19명 구성

목포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축구팀이 창단됐다.

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노봉근)는 5일 학교 체육관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부 창단식을 가

졌다.<사진>

축구부는 프로선수 출신 김찬중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선수는 19명으로 구성됐다. 목포지역에서는 연동초등학교와 목포 제일중, 목포공고 축구팀에 이어 내년 3월 목포시청 축구팀이 창단될 예정이어서 선수들의 연계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승마대회 사상 첫 초등생 우승

광주 유안초 이재경 양

광주 유안초등학교 이재경(6년) 양이 지난 4일 KRA 과천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제3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중 장애물 비월경기(준마) 초·중등부에서 우승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승마를 시작한 이 양은 준마 비월경기에서 자신의 말 '부메랑'과 호흡



을 맞춰 무감점으로 25초89에 골인,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학생으로서 승마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 양은 광주 승마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일을 향해 쏴라

5일 서울 태릉중합사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10M 공기소총에 출전한 남고부 학생이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연필뉴스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오늘 개막

148개국 7천여명 참가... 금 13개·종합 14위 목표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 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6일 개막식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림픽에 이어 장애인 올림픽을 주관하는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5일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공식 선언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48개국에서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 4천99명 등 7천383명이 참가해 총 20개 종목, 295

개 세부종목의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6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올림픽 주경기장인 귀자타위장에서 시작되는 개막식은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 '생명의 여행'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며 320여명의 청각 장애인 이 사상 최대규모의 군무를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 올림픽 개폐막식의 총지휘를 맡은 장지강 총감독은 "2시간50분 가량 진행되는 장애인 올림픽 개폐막식은 올림픽 개·폐막식과 달리 우선 장애인 선수단이 먼저 입장한 뒤에 문화공연 행사가 열린다"면서 "이는 장애인 선수단에게 공연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했다.

장애인 올림픽의 주제는 '꿈과 함께 날아오른다(和夢一起飛)'이며 개막식에서는 중국 특색의 요소가 가미되지만 휴머니즘적인 요소가 강조돼 인간적인 따뜻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화는 베이징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6일 까지 240여명의 손에 들려 중화세기단, 차오양공원 등을 거쳐 6일 밤 귀자타위장에 성대한 불을 밝힌다.

한편 육상, 양궁, 역도 등 13개 종목에 선수 77명 등 131명이 참가한 한국 선수단 '팀 코리아'는 금메달 13개로 종합 14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968년 제3회 텔아비브대회 이후 11번째로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대표팀은 1988년 서울대회에서 금메달 40개로 종합 7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성적이다.

佛 AS모나코 박주영

이웃돕기 1천만원 기탁



프랑스 프로축구 AS 모나코로 이적한 박주영(23)이 전 소속팀 FC서울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보태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5일 FC서울에 따르면 박주영은 구단의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올 시즌 한 골당 50만 원씩을 '사랑의 골' 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하지만 모나코 이적으로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자 따로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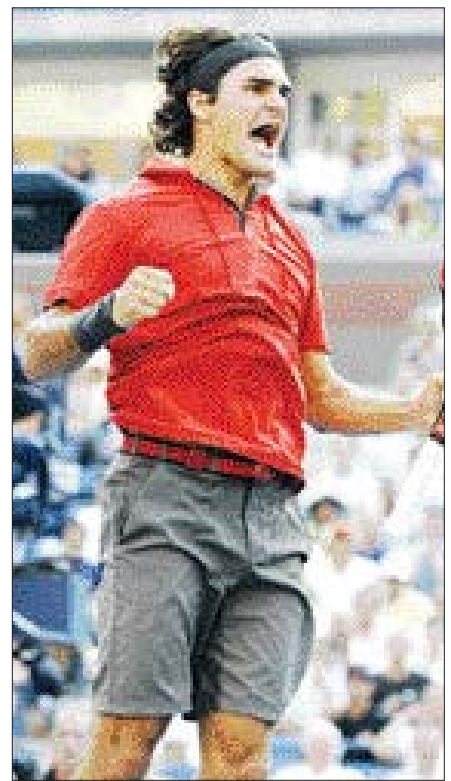
인간탄환 3총사 대결 또 불발

게이 벨기에 육상대회 기권

우사인 볼트(22), 아사라 파월(26·이상 자메이카), 타이슨 게이(26·미국)간 남자 육상 100m 인간탄환 3총사 대결이 또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은 게이가 6일 새벽 3시25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골드리그 남자 육상 100m 결승 경기를 기권했다고 5일 전했다.

지난달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미국대표선발전 200m 레이스 중 왼쪽 허벅지 근육통을 일으킨 게이는 부상 악화를 우려해 대회를 포기했다.

이로써 9초09로 100m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볼트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기록(9초72)을 작성한 파월과 게이의 3자 대결은 다음을 기약했다. 그동안 두 명씩 기량을 겨룬 경우는 있었으나 세 명이 한꺼번에 100m 트랙에서 질주한 일은 없었다.



US오픈테니스 4강 합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사진)가 길레스 빌러(130위·독일부르크)를 꺾고 US오픈테니스대회 남자단식 4강에 합류했다.

페더러는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 빌리진 컨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남자단식 8강전에서 빌러를 3-0(7-6(5) 6-4 7-6(5))으로 물리쳤다.

메이저대회 18개 연속 단식 4강 진출에 성공한 페더러는 US오픈 최근 32연승 행진도 이어갔다.

지난달 18일자 랭킹부터 1위 자리를 라파엘 나달(스페인)에 내준 페더러는 준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를 이기고, 나달 역시 4강에서 앤디 머레이(6위·영국)를 꺾으면 결승에서 맞붙게 된다.



6일(토)

- ▲2008 US OPEN(00 : 00·XSPORTS)
- ▲2008 PGA BMW 챔피언십 2R(04 : 00·SBS 스포츠·SBS골프)
-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2R(12 : 50·XSPORTS)
- ▲2008 SBS 코리아투어 연우 해븐랜드 오픈 3R(13 : 00·SBS 골프)
- ▲2008 KB 국민은행 Star Tour 2차대회 2R(13 : 00·KBS N SPORTS)
- ▲2008 프로야구<롯데 : KIA>(16 : 30·KBS N SPORTS), <SK : LG>(16 : 40·SBS 스포츠), <두산 : 우리>(16 : 50·X-SPORTS), <삼성 : 한화>(17 : 00·MBC ESPN)
-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야쿠르트>(20 : 00·MBC ESPN)
- ▲프로축구 컵대회(서울 : 부산)(20 : 30·SBS 스포츠)

- ▲삼성하우젠 K-리그 2008<서울 : 부산>(20 : 30·KBS N SPORTS) 7일(일)
- ▲2008 US OPEN(00 : 00·XSPORTS)
- ▲2008 PGA BMW 챔피언십 3R(01 : 00·SBS골프)
-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UAE : 북한)(03 : 00·SBS스포츠), <스페인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05 : 30·SBS 스포츠)
-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FR(12 : 50·XSPORTS)
- ▲2008 KB 국민은행 Star Tour 2차대회 3R(13 : 00·KBS N SPORTS)
- ▲2008 SBS 코리아투어 연우 해븐랜드 오픈 FR(13 : 00·SBS 골프)
- ▲2008 프로야구<롯데 : KIA>(16 : 30·KBS N SPORTS), <SK : LG>(16 : 40·SBS 스포츠), <두산 : 우리>(16 : 50·X-SPORTS), <삼성 : 한화>(17 : 00·MBC ESPN)
-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야쿠르트>(20 : 00·MBC ESPN)

LPGA 후원사도 '영어 의무화' 반대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의 소속 선수 '영어사용 의무화' 조치에 대해 LPGA 투어 후원사도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매년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스테이트팜 클래식'을 후원하는 스테이트팜 보험사는 LPGA에 모든 투어 선수에게 효과적인 영어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UPI통신이 광고전문지 애드버타이징에

이지를 인용, 지난 4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열린 올해 스테이트팜 클래식 대회에서는 한국의 오지영(20·에머슨시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LPGA 측은 스테이트팜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애드버타이징 에이지가 전했다.

리바 겔로웨이 LPGA 부위원장장은 이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부터

스테이트팜과 많은 대화를 해왔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다른 후원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스테이트팜에 이어 또다른 후원사인 '초이스 호텔스 인터내셔널'도 LPGA가 새 정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LPGA 관련 뉴스와 공식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